

Wine Made by WOMEN

생각보다 많은 와인에 여성 와인메이커의 존재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와인은 섬세함이 강조되고, 때론 진취적인 스타일로 와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도 하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그녀들의 손때 묻은 와인을 소개하며, 수많은 여성 와인메이커들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실어 보낸다.
글·정리 송수진 사진 제공 각 수입사

- 1 Jane Cooper
- 2 Katherine Brown
- 3 Stephanie Putnam
- 4 Audrey Braccini
- 5 Elena Fucci
- 6 Amelie Berthaut
- 7 Kate Goodman
- 8 Severine Bourrier
- 9 Giovanna Ciacci
- 10 Rebekah Richardson
- 11 Almudena Alberca
- 12 Caroline Frey
- 13 Suzanne Gosset

1 티톨로 Titolo

품종 알리아니고 특징 "우아함." 티톨로를 표현하는 엘레나 푸치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엘레나 푸치(Elena Fucci)의 한마디다. 음식과의 조화도 그녀가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 그래서 이 와인을 만들 때도 우아함과 함께 탄닌과 산미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 침용과 오크 숙성 기간을 짧게 가져간 것도 신선한 미네랄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열정적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그녀의 노력 덕분에 2000년에 설립된 엘레나 푸치는 어느새 바실리카타의 떠오르는 와이너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수입사 KS와인



2 라 포다 뽀뽀라니요 리베라 델 두에로

La Poda Tempranillo Ribera del Duero

품종 뽀뽀라니요 95%, 까베르네 소비뇽 5% 특징 스페인 최초의 여성 MW(Master of Wine)인 알무데나 알베르카(Almudena Alberca)는 라 포다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녀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 자란 뽀뽀라니요의 특성을 오롯이 담아낸 버라이어티알 와인 생산이다. 이 와인도 뽀뽀라니요를 주 품종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잘 짜여진 골격과 탄닌 덕분에 과실의 풍미도 인상적이다. 와인의 백 레이블에는 해시태그로 와이너리에서 강조한 부분을 담아낸다. 이 와인에 달린 해시태그는 #Delicateness #Nature #Vision #Harmony. 수입사 WS통상

3 레이몬드 리저브 셀렉션 까베르네 소비뇽

Raymond Reserve Selection Cabernet Sauvignon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92%, 뽀뽀 베르도 2%, 말벡 2%, 까베르네 프랑 2%, 뽀뽀 시라 1%, 메를로 1% 특징 레이몬드 빈야드의 와인은 캘리포니아에서 28년간 와인메이커로 활동해온 스테파니 퍼트넘(Stephanie Putnam)의 손길이 닿는다. '완벽한 밸런스는 와이너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와인도 밸런스를 위해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 했다. 또한, 복합미, 농밀함, 밸런스 등을 높이기 위해, 스킨 컨택 시간을 늘리는 테크닉을 주로 사용한다고. 수입사 국순당



4 브라운 브라더스 시에나 Brown Brothers Cienna

품종 시에나 특징 2009년부터 브라운 브라더스에 합류한 4대손 캐서린 브라운(Katherine Brown). 그녀는 대학에서 와인 비즈니스 마스터, 양조학 마스터 과정을 거치며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메이커다. 호주연방과학원(CSIRO) 와인 산업 연구소에서 스페인 토착 품종인 수물과 까베르네 소비뇽을 인공적으로 교배해 만든 품종 시에나를 사용한 이 와인은, 캐주얼한 와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는 그녀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와인이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5 폴 자블레 애네 크로제 에르미타주 도멘 드 탈라베

Paul Jaboulet Aine Crozes Hermitage Domaine de Thalabert

품종 시라 특징 이 와인은 붉은 과실, 동물적인 향이 복합적으로 느껴진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와인이 탄생한 배경에는 와인메이커 카롤린 프레이(Caroline Frey)의 역할이 컸다. 2006년 합류한 프레이는 와이너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론 지방의 떼루아를 강조하기 위해, 포도밭 대부분을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전환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다. 수입사 나라셀라